

부인대전양방의 개요

《婦人大全良方》은 宋代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婦產科學의 임상경험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대 한방부인과학 관련 문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적이다. 이 책은 13세기말에 陳子明이 오늘날의 南京 일대를 관할한 建康府를 중심으로 南東 지역의 여러 곳을 순행하여 醫論과 처방 및 증례를 수집하고, 그의 집안에 전해지는 처방과 의론 및 임상경험을 합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은 책이 출판된 南宋 末期는 물론 朝鮮과 明·清代까지 이를 藍本으로 한 서적이나 재인용 문헌들이 계속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의 부인과 교재에도 많은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중요한 문헌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婦人大全良方》은 조선 개국 초부터 醫科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서기 1396년(태조 5년)에 간행되기 시작하여 1474년(성종 5년)에 완성되어 반포된 《經國大典》에는 醫科의 고시과목으로 初試와 覆試 모두 《婦人大全良方》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기 1746년(영조 22년)에 간행된 《續大典》 이후에는 고시과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의학 교육기관으로 조선 개국 당시에 설치되어 조선시대 말기까지 存置되었던 典醫監과 惠民署에서도 《婦人大全良方》을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婦人大全良方》은 조선 후기까지 醫科 시험의 정규 과목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시험과목에서 제외된 후에도 임상적 중요성은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조선 세종 때의 《醫方類聚》에는 殘缺되어 확인이 어려운 求嗣門을 제외한 부인과의 모든 門에서 《婦人大全良方》의 내용이 중요한 醫論과 處方の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東醫寶鑑》에는 卷 3 胞門과 卷 10 婦人門에서 《婦人大全良方》을 직접 인용한 내용들이 보인다. 그러나 《東醫寶鑑》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金元四大家의 저작이나 《醫學入門》 등 《婦人大全良方》의 내용을 인용한 다른 문헌에서 재인용한 내용이 많아 실제로 《東醫寶鑑》 부인과 부분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의의는 더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婦人大全良方》의 내용들은 오늘날에도 《漢方婦人科學》이나 《韓醫婦人科學》과 같은 한의과대학 부인과학 교재에 직접 혹은 재인용의 과정을 거쳐 수재되어 있어 여전히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번역과정과 의사학적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지견을 중심으로提要에서는 첫째 宋의 文化史를 통해 본 陳子明과 《婦人大全良方》, 둘째 《婦人大全良方》의 著作과 관련된 淵源과 板本 및 편재 특성, 셋째 《婦人大全良方》의 주요 내용과 처방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宋의 文化史와 陳子明의 《婦人大全良方》

宋은 五代의 名君으로 중국의 재통일을 꿈꾸던 後周의 世宗이 죽은 뒤 殿前都點檢인 趙匡胤이 近衛兵의 추대를 받아 천자가 되어 960년에 건국한 나라이다. 宋은 北宋과 南宋으로 나뉘는데, 開封에 도읍한 전반을 北宋이라 한다. 또 女眞族이 세운 金이 遼를 쳐서 멸망시킨 여세로 1126년 宋의 수도 開封을 점령하고 徽宗과 欽宗을 포로로 잡아가 宋 왕실의 혈통이 중단되었던 ‘靖康의 變’(1127년) 이후 난을 피해 남쪽으로 도주한 흠종의 동생 高宗(재위 1127~1162)이 남중국의 臨安(지금의 杭州)에 도읍한 후반을 南宋이라 한다. 南宋은 金과 화의하고 중국의 남부지역을 영유하였으나 金을 멸망시킨 몽골군에 의해 臨安이 함락되고 1279년 厓山 전투에 패배하여 9대 152년만에 멸망하였다.

宋은 당의 멸망이후 분열되었던 五代를 재통일하려는 정치적 힘과 五代 各國의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더 많은 부를 추구하려던 상인세력의 의지가 절충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건국된 나라로 볼 수 있다. 宋 이전의 五代 各國은 군비를 확장할 필요에서 재정의 기초를 굳히고자 산업을 장려하였다. 이 때문에 각지에 특산물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그 질도 향상됨으로써 자급자족하던 莊園時代가 지나고 상품경제시대가 도래하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국의 재통일에 대한 상인의 이해와 독재군주의 이해가 일치하였던 것이다.

이 시대의 국가적 부는 唐의 3배 이상에 이르렀고 조세수입의 대부분이 상업에서 유래하게 되었다. 도자기 무역은 이러한 상업과 국제무역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또한 각 지방에서 생산된 물자들의 잉여품은 내수 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 활발하게 교역되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은 조선술과 항해술 및 나침반의 사용이었다. 그 결과 화폐 주조와 유통이 활발하였다. 또한 성장한 경제를 반영하여 지폐까지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越南에서 실크종과 이모작 기술을 도입하고 관개사업을 활발하게 하여 이룩된 농업생산의 획기적 증대 역시 전란을 피해 남으로 이주하여 중국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양쯔강 유역과 그 이남에 살게된 인구부하를 감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都市化를 촉진하고 纏足이나 麵食의 섭취 및 다양한 학문과 같은 문화적 이동을 촉발하여 宋代의 문화를 폭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업의 발달은 물류망의 확보를 전제하게 된다. 北宋의 수도인 開封은 전통적으로 중국 정치의 중심인 양쯔강 이북에 위치하고 있으나 당의 수도인 長安에 비해 철 생산지나 석탄 생산지가 현저히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하와 양쯔강을 잇는 대운하의 황하 쪽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물

류의 중심이 되었다. 宋에 앞서 五代의 여러 나라들이 開封에 도읍한 것 역시 이곳이 중앙정치무대에 속하면서 양쯔강 이남의 쌀과 생산품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다. 金에 의해 淮水 이남의 지역으로 밀려간 南宋의 수도인 臨安 역시 양쯔강과 대운하를 잇는 관문으로 역시 물류의 핵심이 되는 곳으로 인구 60만에서 100만 정도였던 開封보다 더 거대한 도시로 이미 인구가 200만 이상이었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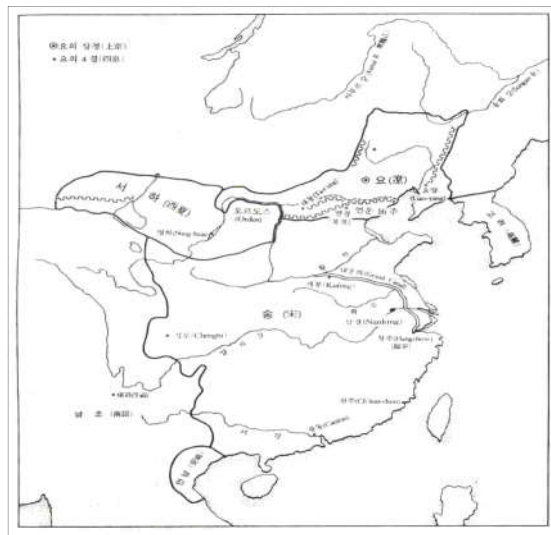


그림 1. 북송의 지도 남송의 영역은 회수 이남지역으로 위축되었다.

南宋은 정치와 군사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적으로는 北宋의 전통을 이어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한 국가였다. 이것은 물류망을 중심으로 내수와 국제 교역을 아우르는 상업의 발달이 지속되었고, 계속된 강남지역의 개발로 인한 농업과 공업의 발달을 통한 경제적 뒷받침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陳子明이 활동한 建康府는 지금의 南京과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서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함은 물론 양쯔강에서 臨安으로 이르는 내륙 수운을 관할하고 수도 臨安을 방어하는 기능을 맡고 있었다. 이 지역은 이러한 물류 중심지로서의 경제적 융성과 제지술과 인쇄술이 발달한 곳이라는 배경을 가져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그림 2. 남경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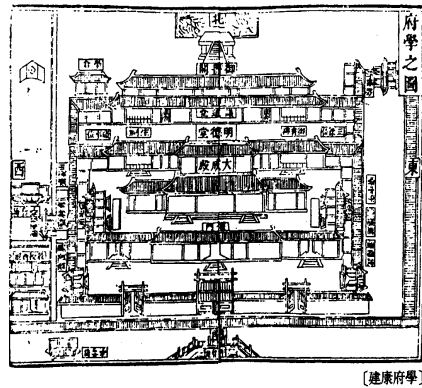


그림 3. 송대의 건강부의 학교(建康府學)

이와 같이 宋代는 인쇄술의 발달로 오랜 전란에서 유실된 진본들을 찾아 모아 발간하려는 욕구가 현실화되었으며, 각 지방의 군사와 행정을 포괄적으로 지배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잠재적 도전 세력이었던 절도사를 억누르고 과거를 통해 관료를 등용한 시대적 분위기는 경제 성장의 토대 위에서 학문을 고취시키게 되었다.

科擧는 합리적으로 인재를 등용하여 국가 발전의 기틀을 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宋의 太祖인 조광윤 자신이 군벌이었으므로 절도사의 무력을 억제하고 견제하면서 잠재적 반란 가능세력을 과거를 통해 권력 내부로 흡수함으로써 내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학문을 장려하고 서적의 활발한 출판을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전대에 비해 1/10 이상으로 떨어진 서적의 가격은 다시 학문의 보편화와 발전을 推動하여 宋은 복고적 문예부흥의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를 지배한 이데올로기는 新儒學으로 불리는 朱子學이었다. 이것은 봉건적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행동양식을 ‘內外陰陽’으로 규정하여 宋이 중국 역사 상 가장 여성 지위와 활동이 억압되던 시기가 되게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지위는 남아선호사상을 심화시키고 영아 살해와 같은 어두운 면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며 求嗣를 위한蓄妾이 보편화되게 하였다.蓄妾은 경제적 성장의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상업의 발달과 급여를 받는 관료 계층의 성장 속에서 인신매매를 낳게도 하였다. 宋代 지배계층의 가옥 구조는 여성의 생활 환경과 남성의 생활 환경을 구분 짓고 여성의 사회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틀이 되었다. 이것은 현재 남아 있는 宋代의 여러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朱子學에 의한 지배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

고 수절을 칭송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여성의 삶을 억압하기도 하였다.

또한 宋代에 광범위하게 상류사회로 퍼진纏足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성적 존재로 강화하는 상징적 풍습이라 할 수 있다. 宋代에는 女性의 美의 기준을 나약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에서 찾고자 하였다. 상류층 여성은 보편적으로 장막을 두르고 생활하며 일광에 대한 노출을 억제하였다.纏足은 여자의 발을 인위적으로 작게 하기 위하여 형겼으로 묶던 풍습으로 이 시기부터 광범위하게 유행되기 시작하였다.纏足은 3-6세에 가로 10cm, 세로 2-2.5cm의 형겼을 발에 동여매고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발바닥 방향으로 접어 넣듯 묶어 조그만 신에 고정시켜 발의 성장을 막고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발뒤꿈치에서 발끝까지 약 10cm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纏足이라고 하며,纏足을 처음한 사람으로 알려진 小脚姑娘의 탄생일인 음력 8월 24일에 시작하는데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3년 쯤 지나면 발은 그 상태에서 발육이 멈춰 공처럼 기형적으로 변한다. 발은 자라지 못하고 고통도 심하여 바로서는 것과 걷는 것이 모두 불안정하며, 발끝으로 서서 걷는 모양이 되고, 자세도 허리 부분이 튀어나와 기형적으로 흐느적거리듯八字걸음을 걷게 된다. 이러한 모습이 중국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하였다. 이것은 蘇東坡와 같은 지식인들에게 문학적으로까지 칭송되었으나 이를 행한 여성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으며, 이후 자신의 삶을 집안으로 고정하게 하고 남성에게 성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의탁하는 존재로 남게 하였다. 그 후 현대 중국의 文化革命期까지纏足은 시각적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특정 근육을 발달시켜 남성에게 성적 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수 백년간 이어졌다.《婦人大全良方》에 있는 ‘刺期門圖’의 여성 그림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유약하고 창백한 느낌을 주며 신체에 비해 극단적으로 작게 표현된 발도 역시纏足을 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러한纏足의 풍습과 함께 본문의 「產後門」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일을 아주 힘들고 비참한 일로 표현한 것은 이 시대 婦產科 진료의 대상에 해당되는 상류층 여성들이 매우 과보호되고 있었으며, 乳母를 둘 수 있는 경제력과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신유학의 발흥과 함께 불교와 도교의 교리가 민중의 생활 속에 體化되는 것 역시 宋代 文化의 특성이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색채는 宋代人의 철학과 사고 방식을 지배하지는 못하였다.

의료 역시 문화 현상이며, 다른 문화적 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로 宋代의 의학과 이의 실천 역시 宋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宋代에는 의학분야에도 복고 또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풍조가 과급되고 있었다. 唐나라 때까지의 養生法은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밖으로부터 약을 투입하여 치료하는 對症療法이 채택되고 있었다. 그러나 宋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溫補의 방법이 등장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환자의 체내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줌으로써 질병을 자연 치유케 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문화적 르네상스 시대였던 이 시대의 의학저작의 특성은 官의 主導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 것인데, 《太平聖惠方》과 같은 대규모의 의학 저작들이 간행되었으며, 이러한 대형저작과 함께



그림 4. 刺期門圖

《太平惠民和劑局方》과 같이 ‘由博返略’의 경향성을 가진 실용적 저작들도 동시에 간행되었다. 또한 지방 경제단위의 성장으로 각 지방의 유력한 개인에 의한 저작과 발간 역시 활발하였던 점도 특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陳自明이 활동하던 建康府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은 《婦人大全良方》과 같은 당시로서는 비교적 힘든 저작활동이 가능하게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婦人大全良方》의 발간은 진본을 찾고 보급하려는 당시의 고증적 학문풍토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의학지식의 수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전문의료인에 대한 학문적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 외에 內外陰陽으로 남녀의 구분과 여성을 집안 내부에 두는 상황에서 집안의 ‘여성병 백과전서’의 개념에 맞는 家藏本으로서의 의학서적을 구하려는 수요에 부합하였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陳子明은 字가 良甫 혹은 良父이며 宋代의 개혁정책인 新法을 주도한 王安石이 태어난 지역인 江西 臨川(오늘날의 江西省 撫洲)에서 서기 1190년(南宋 紹熙元年)에 태어나 1270년(咸淳 六年)에 사망하였다. 그의 조부와 부친 역시 지역의 名醫였기 때문에 유년부터 의학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특히 《黃帝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및 《神農本草經》 등의 경전을 통독하였다. 성년이

된 후에는 中國 東南地方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스승을 찾고 벗을 사귀면서 여러 처방을 수집하는 등 의학 지식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의 의학 지식이나 업적이 그의 조부나 부친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특히 婦産科와 外科에 대한 연구와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는 《婦人大全良方》, 《外科精要》 등이 있는데, 이 책들은 부인과와 외과 분야의 이론과 기술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中國醫籍考》에 의하면 현존하지 않는 다른 저작으로 《管見大全良方》이 있다. 그 내용은 《醫方類聚》의 各證門에서 散見된다.

그는 임상과 교육을 병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婦人大全良方》 서문에서 밝힌 陳自明의 직함인 建康府의 ‘明道書院 醫諭’는 지방 관립 의학교육기관의 교수에 해당된다. 그는 治病을 하려면 方藥이 필요하므로 方藥을 잘 알아야만 의사가 될 수 있는데, 方藥을 운용하려면 반드시 이론적 기초에서 출발하여 ‘深究遍覽’하여 전체적으로 理法方藥의 이론을 파악하고, 아울러 이러한 이론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婦人大全良方》의 서문에서 “世無難治之病, 有不善治之病; 藥無難代之品, 有不善代之人”이라 하였다. 이는 醫師·疾病·方藥의 세 요소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의료인의 의학 연구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집안에 전해진 經驗方에 만족하지 않고, 東南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方書를 폭넓게 수집하여 宋代까지의 여러 醫家の 장점을 섭취하여 지식을 풍부하게 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의식은 그의 행동 속에서 실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특히 《黃帝內經》의 이론을 중시하였다. 《婦人大全良方·調經門》에서 月經의 생리를 闡述할 때, 《素問·上古天眞論》에 실린 “女子七歲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天衝脈盛, 月事以時下”의 說에 依據하여 天癸와 衝任二脈과 月經과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였다. 또한 婦人風痺手足不隨證에 대해서는 “蓋諸陽之經, 皆起于手足, 循行肢體, 因氣虛風邪所客而爲患”이라 하였고, 婦人風邪脚氣에 대해서는, “乃肝脾腎三經, 或胞絡氣虛, 爲風毒所搏而患”이라 하였고, 室女經閉成勞는 “蓋憂愁思慮則傷心, 而血逆竭, 神色先散, 月水先閉 且心病則不能養脾, 故不嗜食. 脾虛則金虧, 故發嗽, 腎水絕則木氣不榮, 而四肢乾痿, 故多怒 鬢髮焦筋骨痿”라 하였고, 또 喘滿의 病機를 모두 《經脈別論》의 ‘出腎病肺’, ‘出肝害脾’, ‘出肺傷心’의 說에 依據하여 설명한 것은 모두 《黃帝內經》의 이론을 심화한 것이다.

巢元方의 《諸病源候論》 역시 陳子明에게 이론적 영향을 미친 중요한 문헌이다. 즉 月經不利는 모두 勞傷氣血하여 身體가 虛弱하여진 後에 風寒이 胞內에 侵入하여 衝任脈을 傷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帶下는 經行이나 産後에 風邪

가 胞脈으로 들어가 臟腑로 傳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妊娠惡阻는 胃氣가 怯弱하여 中脘에 痰이 停滯되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妊娠心痛은 風邪와 痰飲이 交結된 所致라고 본 것 등에 나타난 病因 理論은 대부분이 《諸病源候論》에서 나온 것이다.

처방의 운용은 이론적 타당성과 임상적 효용성이 검증된 여러 방서의 주요 처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和劑局方》의 주요처방들의 내용을 따로 번잡스럽게 다시 적지 않는다 한 것으로 보아 이들 처방들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陳自明이 주로 활동한 영역은 고향인 臨川과 建康府에 속하였던 지금의 江蘇省 南京 일대겠지만 서문에 밝힌 것처럼 東南地方인 浙江省, 福建省, 廣東省, 廣西省 및 지식인의 유배지였던 海南省 일대까지의 관련 처방과 醫論을 수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醫案과 처방의 출처와 관련된 기록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北宋시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상업과 공업활동은 물류 체계의 뒷받침 속에서 남부에서 북부로 화물과 사람의 이동이 전제되어야 하였던 것이다. 長江을 중심으로 한 內陸水運은 그러한 물류의 대동맥이었을 것이며, 沿江都市인 建康府는 수도인 臨安에 버금가는 물류와 상업의 중심지며 서민문화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陳子明은 建康府 明道書院의 교수를 하면서 교육과 함께 활발한 임상 활동에 종사하였고 인쇄술과 경제적 뒷받침 속에서 왕성한 저작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婦人大全良方》 속에 나타난 여러 임상 증례 속의 등장인물은 유일하게 外陰病에서 노비가 한 명 등장할 뿐 모두 자신의 아내와 ‘安人’, ‘夫人’ 등 상류층의 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유모를 고르는 방법을 중요하게 다루고, 胎敎의 여러 방법들이나 산후의 조리법에 사람을 시켜 배를 문지르게 한다는 것과 질병의 진단과정에서 여자 종을 시켜 배를 눌러 보게 하는 것 등을 볼 때 의료의 대상은 상류층 여성에 국한되었으며, 진료 과정에서도 남녀유별의 사회풍습에 따라 간접적 진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이러한 한계는 《婦人大全良方》이 규모와 형식에서 완비된 한방부인과전 문서적이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후대의 보완을 기다리는 ‘開闢의 藍本’으로 남는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陳子明의 업적과 노력은 四庫全書의 提要에서 근면함을 시인한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만 47세에 처음 저술한 이 책을 그가 사망하기 5년 전인 75세에 다시 수정하였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흔적은 醫論과 處方に 부가된 醫案의 시기들이 만 47세 이후의 것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겸손하지만 자신에 찼던, 그리고 의학교육자로 남고자 하였던 陳子明은 《婦人大全良方》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리석은 이의 천가지 생각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득이 있을 것이다. 君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다.”

2. 《婦人大全良方》의 著作과 관련된 淵源과 板本

《婦人大全良方》은 陳子明에 의해 南宋 嘉熙 元年(西紀 1237年)에 저술되었으며, 全書는 24卷으로, 調經·衆疾·求嗣·胎教·妊娠·坐月·難產·産後의 8門으로 나누어져 있다. 每門은 數十證씩 총 260餘論이 있고, 論後에는 治方이 나열되어 있다. 四庫全書 초본의 목차에 나타난 처방의 수는 총 1504방에 이르는데, 이 숫자는 拾遺方과 《和劑局方》에 나와 있어 구성과 구체적 주치를 밝히지 않은 다수의 연계 처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婦人科와 産科에 관한 저작이 과거에도 적지는 않았으나 大部分의 卷帙이 殘缺되어 流傳되는 것은 적었다.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여러 醫家의 좋은 점들을 수집하고 집안에 전해지는 경험방을 부가하여 지었다고 했고, 인용된 문헌은 《傷寒雜病論》, 《諸病源候論》, 《經效產寶》 등 40여종에 이른다. 四庫全書提要에서는 “婦人科의 증치에 대해 고루 다루고 있어 자세히 살펴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평하고 하고 있다.

이 책은 한의학에 있어 최초의 거의 완전한 婦人科 전문서로 비록 완벽한 辨證論治의 체계를 갖추는 것에는 미흡한 면이 있고 이론 역시 제한적인 면이 있으나 한방부인과학 분야의 전모를 갖추고, 이론에 따른 治方의 적용이라는 정돈된 체계를 갖춘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明代 薛己의 《校注婦人良方》, 王肯堂의 《女科證治準繩》, 武之望의 《濟陰綱目》 등은 모두 《婦人大全良方》을 藍本으로 한 저작들이다. 특히 서기 1529년에 薛己가 校注하고, 상당 부분의 처방을 정리한 후 자신의 醫案을 附入하여 엮은 《校注婦人良方》은 《丹溪心法》과 함께 후대의 《景岳全書·婦人規》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이 읽히고 있다. 이 책은 국내에서도 변정환선생님에 의해 번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校注婦人良方》은 《婦人大全良方》과 상당히 다른 편제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薛己는 校注 과정에서 陳自明이 編輯한 上古專方을 많이 刪除하였다. 또 王肯堂의 《女科準繩》五卷은 서기 1607년 明 萬曆 35년 丁未년에 완성되었는데, 《校注婦人良方》을 踏襲하여 이룩된 것이다. 이에 對해 王氏는 “陳自明著作, 雖云大備,

但其說多采巢氏病源，什九歸諸風冷，藥偏獷熱。薛氏增注其方論，酌寒熱之中，大抵依於養脾胃，補氣血，可謂救時之良醫”라 했다. 武之望의 《濟陰綱目》은 1620년 明 泰昌 元年에 저술되었으며 각 문에 따라 분류하고 ‘綱’의 아래에目を 두어 구성한 부인질병의 치료에 관한 서적이므로 이렇게 명명하였다. 이 책 역시 《女科準繩》을 참고하였고, 그 근원에는 《婦人大全良方》이 있었다.

따라서 《婦人大全良方》은 한방부인과학 발전 과정 중에서 宋代까지의 이론과 임상적 성과를 수집하여 明・清代의 부인과학 발전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중간 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眞本の 보존과 보급이라는 宋代 인쇄술의 발전동기와도 부합된다. 그렇지만 南宋代의 저작인 이 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缺帙이 생기고 새로운 판본이 발생되어 최초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婦人大全良方》의 최초 저술연도는 서문에 따르면 서기 1237년이지만 당시에 바로 간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본문에 보이는 醫案의 기록을 볼 때 현존하는 것은 최초 저술 시기 이후의 기록들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고 있는 이 책의 판본은 총 세 가지 계열이 있다. 첫 번째 계열로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陳子明이 75세의 高齡에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元代의 勤有書堂 각본이 있으나 연대가 불분명하고 결실 부분이 있다. 이러한 계열의 초본으로는 清代 乾隆 49년(서기 1784년)의 四庫全書 초본이 중요하다. 또 일본의 丹波元簡 父子가 소장한 聿修堂 초본이 있는데, 초본 안의 後記에는 “陳子明의 眞本이며, 聿修堂이 소장한 朝鮮活字鈔에서 빌어서 쓴다.”는 문구가 있다.

두 번째 계열의 판본으로는 明代 熊宗立이 補遺한 후에 발간된 판본이 있다. 이것은 陳子明의 原書의 모습을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하면서 補遺한 특징이 있다. 매 論 후에는 ‘補遺’의 표기를 붙였으며, 160여 개의 처방과 논술을 덧붙여 3만자에 이르는 증가본이 있다. 또 24권의 처음에 拾遺門을 두고 다섯 개의 論을 싣고 있어서 全書가 총 9門에 이르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판본은 세 가지가 있는데, 正統年間(서기 1436년)의 각본, 正德 4年(서기 1509년)의 각본 및 미국 도서관에 보관된 明代 正統年間の 각본이 있다.

이 두 계열의 판본은 각기 다른 정도의 殘缺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조와 보완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계열의 판본은 明代 薛己의 교주본인데, 이것이 가장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이지만 원서에서 대량의 삭제와 증보가 이루어졌고, 편제도 10門 24卷 280餘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서에서 刪去된 처방이 600여 개에 이르고 신증된

처방은 260餘個이다. 醫案부분은 원서에서는 48개 부분이었지만 530餘例로 증가되었다. 본문 논술부분의 경우에도 대량의 刪滅이 이루어져 있다. 薛己의 교주본은 20여종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明代 嘉正 26년(서기 1547년)에 간행된 것이다. 가장 최근의 간행본은 江西人民衛生出版社의 校釋本과 牛兵占의 《中醫婦科名著集成》에 포함된 판본이 있다.

한편 陳子明의 다른 저작인 《管見婦人大全良方》은 《備急管見婦人大全良方》으로도 불리며,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의 첫머리에 「診脈要訣」 1권이 붙어있다. 이 책은 咸淳 7年(서기 1271년)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醫方類聚》에 일부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다. 기술 방법이나 내용이 《婦人大全良方》과 유사한 것과 書名에 비추어 주요한 부분만을 뽑고 내용을 더욱 심화하여 구성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婦人大全良方》의 주요 내용과 처방

총 8문으로 구성된 《婦人大全良方》은 産科와 婦人科 영역을 통합한 편제로 구성되어 한방부인과 영역을 완비하였다 할 수 있다. 「調經門」부터 시작하여 산후로 끝나는 편제는 부인과 영역의 요소가 정상적이어야 산과 영역이 정상적임을 감안할 때 학리적으로나 임상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宋代는 무역과 경제의 발달로 약물의 사용이 광범위해지고, 석탄의 사용과 약물 가공법의 발달로 광물성 약물의 사용도 보편화된 시기였다. 또한 국가 단위의 광범위한 方書가 간행된 것에 비추어 폭넓은 처방의 운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由博返略’의 풍조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婦人大全良方》에는 광범위한 처방과 의론 수집의 풍조와 함께 ‘由博返略’의 풍조를 반영하는 《和劑局方》 처방의 광범위한 사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책 편재의 처음에 나오는 「調經門」은 “여성을 진료할 때는 먼저 월경을 고르게 하여야하므로 처음에 두었다.” 라고 하였다. 월경의 생리와 관련하여서는 《黃帝內經·素問》 「上古天真論」을 위주로 인용한 「月經序論」에서 월경생리의 대강을 설명하였고, 《褚氏遺書》의 精血을 강조한 이론을 제시하여 精血이 월경의 기본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또 이러한 精血이 稟質로서 자녀에게 전수됨을 설명하고 있다. 치료 원칙에 있어서는 《經效產寶》의 서론을 인용하여 남자의 경우 調氣하는 것에 비해 여성에서는 調經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월경병의 기본 병기와 관련하여서는 王子亨의 방론을 인용하면서 陰陽의 失調와 寒熱의

병리를 중시하고 있다. 月經不調의 구체적 병리는 외부적인 사기와 내부의 경락 이론으로 풀고 있는데, 衝任脈을 경락의 바다로 보고 중시함은 물론 手太陽小腸之經과 手少陰心之經은 表裏가 되어 “主上爲乳汁, 下爲月水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宋代의 《傷寒論》 연구와 《黃帝內經》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室女의 月水不通을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고 婦人의 天癸過期經脈不調 항목을 설정하고 있어 환자의 연령과 사회력상의 특성에 따른 病機 인식과 치료 원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勞瘵症과 관련된 기록이 많은데, 勞瘵症에 대한 별도의 병증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경병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은 노채증이 월경이상의 중요한 원인 병증임을 알고 있었고, 미혼 여성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調經門

「調經門」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병증들은 우선 대표적으로 月水不調와 月水不通을 제시하였으며, 다시 室女月水不通, 室女經閉成勞, 血枯, 月水不利, 月水行或不行心腹刺痛, 月水不斷, 婦人殺血心痛, 崩暴下血不止, 崩中帶下, 崩中漏下, 白濁白淫, 天癸過期經脈不調, 血分水分腫滿 등을 다루고 있어 비정상월경의 여러 양상과 결핵을 비롯한 만성 소모성 질환과 동반된 월경이상, 경행병 중 경행부종과 관련된 병증 등을 다루고 있다. 진단에서는 崩中漏下生死脈方論에서 보듯이 病機에 따른 진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위중한病症의 경우 脈으로 生死를 결정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각 병증에 대한 처방명이 명확한 주요 처방은 다음과 같다.

표 1. 제 1권의 주요 처방

항목	주요 처방
月水不調方論	紫石英圓, 加減吳茱萸湯, 薑黃散, 桃仁散
《養生必用》論經病	當歸散, 紅花當歸散
室女月水不通方論	通經圓
室女經閉成勞方論	柏子仁圓, 刮勞散, 鰾煎圓
血枯方論	徒蓉圓, 乾地黃湯
月水不利論	白薇圓, 牡丹散, 牛膝散
月水行或不行心腹刺痛方論	溫經湯, 地黃通經圓, 琥珀散
月水不斷方論	續斷圓, 禹餘糧圓, 牡蠣圓
崩暴下血不止方論	小薊湯, 荊芥散, 金華散, 如聖散
崩中漏下生死脈方論	栢葉散, 破故紙散, 茯苓散, 溫經湯, 白芷暖宮圓
婦人天癸過期經脈不調方論	當歸散, 茱萸鹿茸圓
婦人血分水分腫滿方論	椒仁圓

2) 衆疾門

「衆疾門」에서는 “월경이 고르지 않아 여러 질병이 생기므로 그 다음에 두었다.” 라고 하였다. 여성의 여러 질환은 월경이상에서 그 병리적 기초가 수립된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여러 질환에 대한 총론적 입장은 《三因極一病證方論》의 “옛 방서에서는 부인의 병이 남자의 병에 비해 열배나 치료하기 어렵다 하였는데 역시 그 말이 심오하다. 다만 서른 여섯 질병과 산욕과 관련된 질병의 부분은 남자에게는 없다. 그 나머지 傷風・傷暑・傷寒・傷濕, 喜의 內積・怒의 內積・憂의 內積・思의 內積・飲食・房勞・虛實・寒熱 등은 모두 남자와 같다.” 라 한 이론과 《產寶方》의 “여자들은 대체로 욕구가 남자보다 많으며 남자보다 곱절이나 병에 잘 걸리고 더욱이 연모함・애증・질투・근심과 분노 등이 뒤섞여 강하게 작용하고 정서를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여 병의 뿌리가 깊어지고 병을 치료하여도 잘 낫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 이론을 인용하여 여성질환을 치료하기 어려움과 함께 여성의 특수한 질환과 남녀의 공통적인 질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博濟方》의 醫論을 인용하여 부인병의 기본이 자궁의 冷熱을 조절하지 못함에 의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寇宗奭의 醫論을 인용하여 진단 과정에서 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望診이나 기타 진료 소견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宋代 상류층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고 깊숙한 곳에 거처하여 노출을 적게 함으로써 四診合參이 어려웠던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제시된 병증들은 제 3권에서는 中風, 中風角弓反張口噤, 中風

口噤, 中風不語, 風痺手足不隨, 中風自汗, 臂痛, 賊風偏枯, 偏風口喎, 血風心神驚悸, 失血過多心神不安, 風邪顛狂, 飛尸血厥 등이다. 제 4권에서는 血風身體骨節疼痛, 血風白虎歷節走注, 血風癰疹瘙癢, 虛風頭目眩暈及心眩, 血風頭痛, 腎厥頭痛, 厥逆頭痛, 項筋強痛, 腰痛, 腰脚痛, 脚氣 등이다. 제 5권에서는 骨蒸勞, 血風勞氣, 風虛勞冷, 冷勞 등이다. 제 6권에서는 熱勞, 客熱, 寒熱, 寡婦寒熱如瘡, 惡寒, 血風煩悶, 血風攻脾不能食, 夢與鬼交, 傷寒傷風, 熱入血室, 咳嗽, 勞嗽, 喘滿, 風痰, 心胸嘈雜 등이다. 7권에서는 嘔吐, 霍亂, 翻胃, 血膈, 鼻衄, 吐血, 疥癬諸氣, 疝瘕, 八瘕, 腹中瘀血, 癥瘕, 食癥, 積年血癥塊, 血氣心痛, 血氣心腹疼痛, 血氣小腹疼痛, 兩脅脹痛, 心腹脹滿 등이다. 血氣心腹疼痛의 처방은 월경곤란증이나 골반통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8권에서는 淋瀝小便不通, 脬轉不得小便, 小便數, 遺尿失禁, 小便出血, 大便不通, 風入腸間或秘或利, 泄瀉, 協熱下利, 滯下, 痢後嘔噦, 大便下血, 痔瘻, 脫肛, 陰腫, 陰癢, 陰冷, 陰挺出下, 陰中生瘡, 傷丈夫頭痛, 交接輒血痛, 交接他物傷, 小戶嫁痛 등이다. 이들 병증에 대한 처방에 앞서 通用方序論에서 여성질환에 통용할 수 있는 처방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여성 질환의 일반적인 경우에 두루 쓰면서 이 처방들을 기본방으로 이용하여 가감 응용하는 실용성을 보이고 있다. 제 2권의 통용방 중 주요한 것은 加減四物湯, 佛手散, 丹參散, 勝金圓, 交加散, 補中圓, 白朮煎, 滋血湯 등이다.

한편, 제 8권에서 女人交接他物傷方 및 小戶嫁痛方에는 오늘에 활용하기 적합한 처방은 없으나 그 당시의 개방적인 성생활 풍습과 관련 병증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기타 제 3권부터의 병증에 따른 주요 처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제 3권의 주요 처방

항목	주요 처방
婦人中風方論	排風湯, 參蘇飲, 加減小續命湯, 小風引湯, 《必效》竹瀝湯
婦人中風角弓反張口噤方論	葛根湯, 桂枝加葛根湯, 八物白朮散, 白僵蠶散
婦人中風口噤方論	天南星散
婦人中風不語方論	神仙解語丹, 防風湯
婦人風痺手足不隨方論	三痺湯
婦人中風自汗方論	獨活湯
婦人臂痛方論	舒經湯, 流氣飲子
婦人賊風偏枯方論	大八風湯, 續斷湯
婦人偏風口喎方論	深師續命湯
婦人血風心神驚悸方論	茯神散, 龍齒圓
婦人失血過多心神不安方論	寧志膏
婦人風邪顛狂方論	防風散
婦人飛尸血厥方論	雄硃散

표 3. 제 4권의 주요 처방

항목	주요 처방
婦人血風身體骨節疼痛方論	芎藭散, 羚羊角散
婦人血風白虎歷節走注方論	四生圓, 芍藥知母湯, 附子八物湯, 獨活寄生湯
婦人血風癰疹瘙癢方論	何首烏散
婦人虛風頭目眩暈及心眩方論	鉤藤散, 蔓荊子散, 四神散, 川芎散
婦人血風頭痛方論	川芎當歸散, 七生圓, 玉真圓, 白附子散
婦人項筋強痛方論	追風散, 蝎附散
婦人腰痛方論	如神湯, 獨活寄生湯
婦人腰脚痛方論	酸棗仁散, 骨碎補散
婦人脚氣方論	牛膝散, 大腹皮散, 半夏散, 桑白皮散, 薏苡仁散, 四白散

표 4. 제 5권의 주요 처방

항목	주요 처방
婦人癆瘵敘論	溫金散, 桔梗飲子, 瓜蒌湯, 子芩散, 含化圓, 河車圓, 補肺湯
婦人骨蒸勞方論	黃耆圓, 鱉甲煎, 青蒿鱉甲煎圓, 逍遙散
婦人血風勞氣方論	地黃煎, 荊芥散, 如聖散
婦人風虛勞冷方論	澤蘭散, 熟乾地黃圓
婦人冷勞方論	桃仁散, 木香圓, 熟乾地黃圓

표 5. 제 6권의 주요 처방

항목	주요 처방
婦人熱勞方論	黃耆散, 半夏散
婦人客熱方論	麥門冬散
婦人寒熱方論	地骨皮散, 荊芥散
寡婦寒熱如瘧方論	生地黃圓
婦人惡寒方論	敗毒散
婦人血風煩悶方論	赤芍藥散
婦人血風攻脾不能食方論	草豆蓮散, 神麴圓
婦人夢與鬼交方論	茯神散
婦人傷寒傷風方論	桂枝紅花湯, 黃芩芍藥湯, 青竹茹湯
婦人熱入血室方論	小柴胡湯, 乾薑柴胡湯
婦人咳嗽用溫藥方論	蛤蚧圓, 含化圓, 貝母湯, 定喘湯, 補肺湯
婦人喘滿方論	神秘湯, 千縉湯, 神授湯, 九寶湯
婦人風痰方論	旋覆花湯, 天南星圓, 柴胡半夏湯, 金沸草散, 四七湯
婦人心胸嘈雜方論	旋覆花湯, 半夏茯苓湯

표 6. 제 7권의 주요 처방

항목	주요 처방
婦人嘔吐方論	益智子散, 丁香散, 竹茹湯
婦人霍亂方論	加減理中圓, 四順湯, 香薷散, 訶子散
婦人翻胃吐方論	白芷散
婦人血膈方論	牡丹煎
婦人鼻衄方論	刺薊散, 伏龍肝散, 茅花湯
婦人吐血方論	鷄蘇散, 四生圓, 犀角地黃湯
婦人疥癬諸氣方論	葱白散
婦人疝瘕方論	礪砂圓
婦人八瘕方論	桃仁煎
婦人腹中瘀血方論	桃仁圓
婦人癥瘕方論	蓬莪茂圓
婦人食癥方論	礪石圓
婦人積年血癥塊方論	琥珀圓, 三棱煎
婦人血氣心痛方論	烏藥散, 阿魏圓, 鷄舌香散, 陳氏二神圓, 失笑散
婦人血氣心腹疼痛方論	延胡索散, 琥珀散, 沒藥散, 瑞金散, 鱗痛散, 牡丹散, 延胡索散
婦人血氣小腹痛方論	藏靈散, 當歸散
婦人兩脅脹痛方論	草豆蔻散, 木通散, 三脘散
婦人小腹脹滿方論	檳榔散, 白朮散

표 7. 제 8권의 주요 처방

항목	주요 처방
婦人淋瀝小便不通方論	木通散, 石葦散
婦人脬轉不得小便方論	滑石散
婦人小便數方論	鹿茸散, 桑螵蛸散
婦人遺尿失禁方論	鹿茸圓
婦人小便出血方論	鹿茸散, 生乾地黃散, 當歸散
婦人大便不通方論	七宣圓, 麻仁圓, 牽牛子散, 大麻仁圓
婦人風入腸間或秘或利方論	大五柔圓, 二仁圓
婦人泄瀉方論	香朴圓, 桂香圓, 豆蔻分氣飲, 五香散, 木香散
婦人協熱下利方論	四味阿膠圓
婦人滯下方論	白豆翁湯, 六神圓, 三黃熟艾湯, 四順附子湯, 豆蔻餅
婦人痢後嘔噦方論	橘皮乾薑湯, 橘皮竹茹湯, 丁香柿蒂湯, 猪苓湯
婦人大便下血方論	地榆湯, 腸風黑散
婦人痔瘻方論	鱉甲散
婦人脫肛候方論	《集驗》方
婦人陰腫方論	菖蒲散, 麻黃湯洗方, 白礬散
婦人陰癢方論	大黃散
婦人陰冷方論	五加皮浸酒方, 坐導藥, 坐藥法
婦人陰挺出下脫	當歸散
婦人陰中生瘡方	黃芩湯洗方, 雄黃散
女人傷丈夫頭痛方	桑白皮湯
女人交接輒血痛方	《千金》方

3) 求嗣門

卷之九는 「求嗣門」으로 陳無擇求子論과 褚尙書澄求男論을 인용하여 男兒를 낳아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또 《千金翼方》의 求子方論을 인용하여서 남녀의 상생 화합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求嗣門」에는 금기법이나 인과응보적 일화 등 다소간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미신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男女受胎時日法, 推王相時日法, 推貴宿日法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불교와 도교의 양식이 일생생활 속으로 관습화된 것과 신유학이 지배이데올로기로 중요한 철학과 이념의 근간이 된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처방과 관련하여서는 《千金翼》求子方論에서 七子散, 慶雲散 등 남성의 불임을 치료하는 처방을 수재하고 있어서 求嗣를 위한 치료에서는 남녀를 동시에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처방으로 秦桂圓, 養眞圓 등의 처방이 있다. 또 溫隱居求嗣保生篇方論에는 續嗣降生丹 등이 있다.

4) 胎敎門

제 10권과 11권은 「胎敎門」으로 이 중 제 10권은 임신의 성립과 태교에 관한 철학적이며 교학적인 내용을 총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妊娠總論, 娠子論, 受形篇, 論胎敎, 孕元立本章, 凝形殊稟章, 氣質生成章 및 轉女爲男法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교의 기본적인 근거는 妊娠總論에서 “三月名始胎, 當此之時, 血不流行, 形象始化, 未有定儀, 見物而變.” 이라 한 것처럼 태아의 성장과정에서 외부적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태아의 稟質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娠子論에서 “자식이 뱃속에 있다 어머니를 따라 듣게 된다. 임신한 후부터는 움직이고 앉는 것이 단정하고 엄정하여야 하며, 성정이 온화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조용한 방에 있도록 하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듣도록 하며, 사람을 시켜 詩書를 읽게 하고, 예의를 실천하고 음악을 즐기며, 귀로는 그릇된 말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태어나는 아들과 딸이 복이 있고 장수하며 덕이 두텁게 되고 충효하며 현명하게 된다.” 라고 하여 이러한 태교의 내용과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 11권은 임신 중의 진단, 섭생 태교 및 금기 등 섭생 일반 등 보다 임상의학의 각론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脈例, 診婦人有妊歌, 驗胎法, 胎敎避忌產前將護法, 月遊胎殺, 十干日遊胎殺, 十二支日遊胎殺, 六甲旬遊胎殺, 太史局日遊胎殺, 食忌論 및 孕婦藥忌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妊娠門

제 12권에서 제 15권은 「妊娠門」으로 임신 중의 각종 질환을 망라하고 있다. 제 12권에서는 임신의 개월 수에 따른 약물 복용법과 섭생법의 일반을 제시하여 임상적 활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병들은 그 후에 다루고 있다. 특히 《備急千金要方》 권 2, 「婦人方」上, 徐之才逐月養胎方의 내용을 인용하여 태아의 발생과 성장을 經絡論의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제시된 병증은 惡阻, 痰逆不思食, 胎動不安, 漏胎下血, 卒然下血, 驚胎及僵仆, 胎上逼心, 忽然下黃汁如膠或如豆汁胎動腹痛, 誤服毒藥傷動胎氣, 心痛, 心腹痛, 中惡, 腰腹及背痛,

小腹痛, 心腹脹滿 등이다. 특히 惡阻에서는 《備急千金要方》의 半夏茯苓湯과 茯苓圓이 전문적인 처방이나 半夏가 염려됨을 설명하면서 대안의 처방으로 白朮散, 人參丁香散, 人參橘皮湯, 醒脾飲 등을 제시하고 있다. 胎動不安에서는 그 이유를 衝任經의 허약으로 인한 수태의 불안정, 외감풍한의 침입, 음주와 성생활과도에 의한 손상, 정서적 손상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위중한 상황이므로 임부와 태아의 존망에 대한 판단법을 제시하고 있어 당시 產科醫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처방으로는 黃耆湯, 安胎鐵罩散, 治胎動方, 寄生湯, 順氣飲子, 膠艾湯 등이 있는데, 대부분 補氣益血補腎安胎 하는 약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卒然下血에서는 주로 속단 艾葉 苧麻根 生地黃 등의 약물로 출혈을 조절하고 있었다. 또 宋代 이전부터 丹藥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誤服毒藥傷動胎氣를 두고 있어 임신 중에 이런 단약이나 독성 있는 약의 誤服에 대한 처치가 중요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 13권에서는 數墮胎, 胎不長養, 胎動安不得, 墮胎後血下不止, 日月未足欲產 등의 산과적 질환과 영구피임법이라 할 수 있는 斷產法에 대한 기술이 있었다. 또 임신중의 일반 질환으로서 咳嗽, 吐血衄血, 子煩, 煩躁口乾 등을 다루고 있다. 제 14 권에서 다루는 임신중의 질환들은 中風, 風痙, 腹內有鬼胎, 傷寒, 時氣, 熱病, 傷寒熱病과 이에 대한 損胎의 예방법, 熱病胎死腹中, 瘡疾, 霍亂 등이다. 제 15 권에서 다루는 임신 중의 질환들은 泄瀉, 下痢赤白及黃水, 大小便不通, 小便不通, 子淋, 遺尿, 尿血, 胎水腫滿, 腹內鐘鳴, 孕癰, 不語, 傷食, 臍躁悲傷 등이다. 「妊娠門」에서 처방명이 정식 기재되어 수재된 주요 처방은 다음과 같다.

표 8. 제 12권의 주요 처방

항목	주요 처방
妊娠隨月數服藥及將息法	烏雄鷄湯, 阿膠湯, 安胎當歸湯, 麥門冬湯
妊娠惡阻方論	白朮散, 人參橘皮湯, 人參丁香散, 保生湯
妊娠痰逆不思食方	半夏茯苓湯, 茯苓圓, 茯苓散
胎動不安方論	葱豉安胎方, 鉤藤湯, 黃耆湯, 治胎動方, 順氣飲子, 安胎寄生湯, 膠艾湯
妊娠驚胎及僵仆方論	佛手散
妊娠胎上逼心方論	紫蘇飲
妊娠誤服毒藥傷動胎氣方	阿膠散
妊娠心痛方	川芎當歸湯, 白朮湯
妊娠心腹痛方論	當歸芍藥散, 草豆蔻散, 阿膠散
妊娠中惡方論	當歸散
妊娠腰腹及背痛方論	通氣散, 大地黃圓, 苧根湯
妊娠小腹痛方論	當歸散
妊娠心腹脹滿方論	倉公下氣湯, 訶梨勒散

표 9. 제 13권의 주요 처방

항목	주요 처방
妊娠數墮胎方論	紫石英圓
妊娠胎不長養方論	黃耆散, 養胎人參圓, 白朮圓
妊娠胎動安不得却須下方論	桂心散
妊娠墮胎後血下不止方論	龍骨散
妊娠日月未足欲產方	知母圓
斷產方論	《廣濟》落胎方
妊娠咳嗽方論	款冬花散, 桔梗散, 百合散, 紫菀湯
妊娠吐血衄血方論	白茅花湯
妊娠子煩方論	竹葉湯, 麥門冬散
妊娠煩躁口乾方論	知母散

표 10. 제 14권의 주요 처방

항목	주요 처방
妊娠中風方論	防風散
妊娠風瘧方論	麻黃散, 防風葛根湯
妊娠傷寒方論	加減四物湯, 阿膠湯, 黃龍湯, 芍藥湯, 當歸茯苓散, 白朮散
妊婦熱病方論	葱白蘆根湯
妊娠熱病胎死腹中方論	催生湯
妊婦霍亂方論	人參散, 白朮散, 木瓜煎, 縮脾飲

표 11. 제 15 권의 주요 처방

항목	주요 처방
妊娠泄瀉方論	草果散
妊娠下痢赤白及黃水方論	地榆散, 黃連阿膠散
妊娠大小便不通方論	猪苓散
妊娠小便不通方論	八味圓
妊娠子淋方論	黃芩湯, 猪苓散
妊娠遺尿方	白薇散
妊娠尿血方	續斷湯, 熟地黃湯
妊娠胎水腫滿方論	天仙藤散, 茯苓散, 鯉魚湯, 五皮散
妊娠傷食方論	木香圓
妊娠臟躁悲傷方論	大棗湯

6) 坐月門

卷之十六은 분만 당시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는 「坐月門」이다. 첫머리에 서는 《產寶方》周頌序文을 인용하여 출산의 중요성, 출산과정에서 의사가 하여야 할 자세, 《經效產寶》가 중요하고 의의가 있음 등을 밝히고 있다. 將護孕婦論에서는 정상적인 분만상황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으며, 당시에 분만과정이 坐位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분만과정의 초기에 서두르거나 힘을 주거나 분만촉진약을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다. 滑胎例에서는 분만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과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분만촉진용 처방으로는 滑胎枳殼散, 《選奇方》의 처방, 內補圓, 易產滑胎方, 神寢圓, 榆白皮散, 猪肚方, 保氣散 등이다. 이들 처방에서 주된 구성 약물은 枳殼, 當歸, 榆白皮, 車前子 등이다. 月空方位例, 逐月安產藏衣忌向方位, 推婦人行年法, 體玄子借地法, 禁草法, 禁水法 등은 제일 마지막 부분의 催生靈符와 함께 분만과 관련된 주술적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어 오늘날 보기에 불합리하고 미신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분만을 인식하는 태도와 주의함을 엿볼 수도 있다. 入月預備藥物에서는 保氣散, 佛手散, 枳殼散, 神寢圓, 榆白皮散, 保生圓, 催生丹, 黑神散, 大聖散, 花蕊石散, 黑龍丹, 理中圓 등 분만과정이나 분만 후에 활용되는 약물과 여러 가지 소도구 등을 망라하여 열거하고 있다.

7) 產難門

卷之十七은 「產難門」인데, 「坐月門」과 구분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 難産이 빈번하였고, 이에 대한 임상적 대처가 매우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產難門」의 구성은 난산에 대한 총론격으로 產難論과 楊子建의 《十産論》을 제시하였고, 난산에서 분만 축진을 위한 약물의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서 催生方論과 郭稽中産難方論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난산으로 子死腹中된 상태에서 배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술로서 產難子死腹中方論을 두고 있으며, 생사의 갈림에 대한 판단의 준거와 지침을 담은 產難生死訣이 있다. 「產難論」에서는 난산을 예방하기 위해 분만의 前徵인 弄痛과 정상적인 破水가 아닌 試水 단계를 잘 구분하여 정상적인 분만 단계에 이르러서 산실에 들어가서 분만을 시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계절 등에 따른 쾌적한 분만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楊子建의 《十産論》에서는 正産, 傷産, 催産, 凍産, 熱産, 橫産, 倒産, 偏産, 礙産, 坐産 등 10가지 분만상황과 덧붙인 내용으로 盤腸産을 설명하고 있다. 催生方論에서는 “지금 분만을 촉진하는 여러 처방을 기록하였는데 모두 유명한 의사들이 여러 번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본 것으로 다행스럽게도 인연이 되었다.” 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분만을 촉진하는 처방들이 난무하고 있었고 陳子明이 그 중에서 정선된 처방을 얻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처방들로서는 催生柞木飲子, 催生如神散, 催生如聖散, 催生丹, 乳香方, 如神開骨膏, 蛇蛻方, 遇仙丹, 如聖膏, 催生如意散 등이 있다. 또 郭稽中産難方論에서는 勝金散과 神應黑散을 제시하고 있는데, 神應黑散은 곧 催生如神散이다. 產難子死腹中方論에서는 五行禁忌 등을 위반하는 것이나 분만을 너무 서두른 것으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고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처리하는 처방으로 當歸葵子散 및 平胃散加 朴硝와 기타 水銀이나 麝香이 들어가는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다. 產難生死訣에서는 분만하려고 하는 산모의 맥을 ‘離經’으로 설명하였고, 산모의 몸이 무겁고 열이 나고 또 한기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혀 아래의 혈관이 검고 또 청색이이며, 위로 말린 혀가 차면 태아는 사망하며 뱃속에서 내보낸 산모 역시 죽음에 이른다고 하였다. 산모의 맥이 緩活한 것은吉하고, 實大弦急한 것은 산모가 사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는 등의 설명이 있다.

8) 產後門

제 18권부터 24권까지는 「產後門」으로 산후의 제반 관련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제 18권에서는 먼저 산후에 대한 총론적 설명으로 產後將護法과 產後調理法이 나와 있고 바로 뒤에 산후의 통용처방에 대한 내용인 產後通用方論이 있다. 이 이후에는 산후의 각종 병증에 대한 의론과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產後將護法에서는 사내 아이 오줌 한잔을 마시게 하고, 곧바로 눕지 않도록 하며, 賊風이 침범되지 않도록 하고, 명치에서 배꼽아래까지 문지르게 하여 惡露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또 막 분만을 마치면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서는 안된다 하여 당시에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하였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산모의 정서적 안정을 중시한 것도 알 수 있다. 산후 3일 내에 산모가 식초를 숯에 뿌린 냄새를 맡도록 하거나 혹은 乾漆을 태운 연기를 맡도록 하여 血逆·血迷·血運不省의 질환을 예방하도록 하였는데, 산과적 출혈에 의한 제반 질환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을 엿보게 한다. 1랍 후에 진한 술과 약간 짜게 먹을 수 있다고 한 것과 술을 간간이 조금씩 복용하면 風邪를 피하고 氣血을 기르며 惡露가 배출되도록 하고 乳脈이 돌아 젖이 잘 나오게 한다고 한 것을 보아 당시에 여성들에게 음주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후의 음식 섭취에 관해서는 영양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각 지방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삼 개월 후에는 비로소 따뜻한 국수를 조금 먹을 수 있고, 국수를 너무 일찍 먹으면 중기의 병을 형성한다고 한 것을 보면 양쯔강 이북 지역의 사람들이 양쯔강 이남으로 이주하면서 밀가루음식을 섭취하는 문화가 유입되었고, 이에 의한 문화적 충격을 완충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안정을 중시하는 산후 조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체로 산후 100일이 되어야 비로소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蓐風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產後調理法에서는 약물 사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黑神散을 네 번 복용하도록 하고, 또 補益하는 환약이나 산제 등의 약물류를 약간 준비하도록 하였다. 유즙배출과 관련된 통증에는 玉露散을 한두 번 복용하도록 하였다. 血量과 兒枕痛에 관한 치료약물의 사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만약 대변이 굳거나 소변이 깔깔하면 결코 통변약이나 이뇨약을 복용할 수 없는데, 이것은 진액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產後偏身疼痛은 傷寒으로 보고 치료하면 땀이 나면서 근맥이 움직여 떨리고 손발이 싸늘해져 다른 병이 변해서 생긴 것으로 趁痛散을 복용하여 제거하며, 蓐勞 등 여러 병증이 더 심해진 것은 모두 진통산으로 치료할 수 없고 五積散에 식초를 넣고 달여서 쓰면 무방하다. 또 산후의 요통은 분만하면 腎氣를 힘들여 상하게 되고 胞絡을 손상시켜 동하게 하며, 허약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風